“초발심과 아난의 은혜 잊지 말라” 대애도 당부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14)

5백 명의 석씨 여인들이 출가를 청하다

유리왕으로부터 살아남은 한 석씨 여인이 5백 명의 여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부처님 법에 ‘만약 사람이 아주 위급한 가운데서 일심으로 귀명(歸命)한다면 바로 평안함을 얻는다.’ 고 했습니다.”

이때 5백 명의 여인들이 다 함께 소리를 모아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석가모니를 염송했다.

“겨우 살아남았으나 저희들은 손발이 아프고 마음은 괴롭고 애통합니다.”

이때 공중에서 여래의 선근의 힘으로 대비의 구름이 일어났다. 대자비의 비가 내리더니 모든 여인들의 상처난 손발이 아물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인들은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곧 여인들은 옷과 발우를 구해 왕원정사로 나아가 출가할 것을 청했다. 이때에 이들을 맞은 비구니가 석씨 여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것을 보고는 이들에게 세간의 5욕(欲)과 즐거움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더 되어서 출가하여도 좋지 않은가?”

“세간의 5욕에는 허물과 근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 5욕을 우리들에게 권하는 것입니까?”

모두들 소리 높여 물으니, 한 비구니가 석씨 여인들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때에 석씨 여인들은 슬픔과 기쁨이 마음속에 교차했다. 그리고 석씨 종족이 멸망하고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 사실을 모두 화상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의 화상이 대답했다.

“너희들의 고통이 무슨 말할 거리나 되겠느냐? 내가 옛날 어려서 사위국에 살 때였다. 부모가 나를 북방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 나라 풍속에 여자가 달이 차서 아이를 낳으려 하면 친정으로 보냈다. 아이 낳을 달이 다가와 우리 부부가 모두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다. 도중에 강이 있었는데 그 물이 느닷없이 범람해 길은 끊기고 도적들이 들끓었다. 강을 건널 수가 없어 언덕 옆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커다란 독사가 갓 난 아이의 냄새를 맡고는 곧장 나를 향해 기어왔다. 독사가 먼저 종을 물어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소와 말까지 죽여 버렸다. 그 틈에 아이들과 겨우 살아남은 나는 며칠 동안 언덕에서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 강물이 줄어 등에 둘째를 업고 큰 아이를 앞세우고, 치마에 갓 난 아이를 담아서 입에 물고는 곧장 강을 건넜다. 강을 반쯤 건너가다가 큰아이가 안 보여 돌아봤더니 범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소리를 질러 아이를 부르느라 그만 입에 물었던 치마를 놓쳐버렸다. 젖먹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고, 또 등 위에 있던 아이도 손을 놓아 그만 물에 떨어뜨려 죽게 하였는데, 범에게 쫓기던 큰 아이마저도 결국 범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워 기절하고 말았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와 나를 구했는데, 그 가운데 한 장자가 나의 부모를 아는 사람이라 내가 부모의 소식을 물었다.

‘어젯밤에 불이 나서 너의 집은 다 타 없어지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기절했다.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렸는데, 이때 5백 명의 도적 떼가 나타나 함께 있던 사람들을 헤치고 나를 잡아가 도둑의 아내로 삼았다. 그들은 내게 도적들이 밖에 나갔다가 쫓기는 일이 있거나 해서 급하게 들어와야 할 때 재빨리 문을 열어주고 닫아야 하는 문지기를 시켰다. 어느 날, 도둑들이 다 함께 노략질을 나갔다가 들켜 급히 돌아와야 했다. 그때 나는 집안에서 아이를 낳느라 제때 문을 열어주지 못했고 도둑들은 급하게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화가 난



삽화 · 강병호

도둑들이 내게 따져 물었다.

‘아이를 낳느라 그랬습니다.’

‘그깟 아이 때문에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었단 말이냐?

그러고 나서 칼을 뽑아 아이의 손발을 잘라 버렸다. 남편은 계속해서 도둑질을 했는데 어느 날, 도둑질을 하다가 끝내 관리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는 곧 참해지고 아내인 죄로 나까지 산 채로 매장되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지닌 옥구슬을 탐내어 무덤을 파고 꺼내 가면서 나까지 데리고 가 살아났는데, 얼마 후 나는 다시 관리에게 붙잡히게 되어 다시 매장되었다. 숨이 끊어지려 할 때, 사람 냄새를 맡은 범이 이리저리 무덤을 파헤치다 돌아갔다. 나는 겨우 파헤쳐진 무덤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마을로 내려와 도움을 청했다. 이때 어느 장자가 가엾이 여기고 말했다.

‘일찍이 듣자하니, 부처님 법에 안온함이 있고 모든 쇠함과 고뇌가 없다 하던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나의 스승인 대애도(부처님의 이모이자 유모)비구니를 찾아 출가하고 부처님 법을 닦아 익혀 평안함을 얻고 도의 과위를 얻었다.”

석씨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고, 법안(法眼)을 얻었다. 이때 곁에 있던 대애도비구니가 말했다.

“나의 출가도 쉽지 않았다. 여래의 법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맡은 몫이 있는데도, 여래께서는 우리들 여인들을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혹이 많아 집착을 버리기가 어렵고, 어리석은 사랑이 마음을 덮어 애욕의 물에 가라앉아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어 현재 몸으로는 보리를 득할 수가 없다.’

그 때 아난 존자가 나를 위해 부처님께 간청했었다.

‘대애도가 여래의 육신을 젖을 먹여 기르셨기에 여래께서 성불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대애도가 마음으로 귀의하고 청정하게 여덟 가지 법을 닦는다면 출가를 허락하리라.’

나는 출가하여 부처님 법을 닦고 널리 미래의 여인들을 위해 거듭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미래의 착한 여인들이 저와 같이 여래의 법을 믿고 좋아하고 공경한다면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여인이 부처님 법을 지니고 닦는다면 계율 · 보시 · 다문 · 3귀 · 5계에서 구족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을 허락하리라.’

나는 언제나 지극한 마음으로 아난의 은혜를 생각하여 공양하고 공경하며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출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이니 처음 먹은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대방편불보은경〉 5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⑭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외손주와 미국 다녀온 사연

나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7년 전 어느 날 외손주와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히 “우리 미국 여행갈까?” 라고 말했다.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후의 상황에 달라졌다.

“할머니 우리 언제 미국 갈 거예요?”

아이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재촉했다. 나는 부산에 살고 손주는 서울에 살고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지만 그 당시는 초등학교 2학년 9살이었다.

나는 고민이 되었지만 거짓말쟁이 할머니가 될까봐 “그래 약속을 했으니 가는 거야. 떠날 준비를 하자구나.”

그해 8월에 손자와 단둘이 그 먼 미국엘 갔다.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그곳엔 오직 한사람 거해 스님이 계셨다. 하루 한 끼의 공양을 드시고 위빠사나 수행을 하시는 스님은 아버지 때부터의 인연으로 가끔은 우리 집에도 오셨고, 안부 전화도 하던 터이기에 용기를 냈다.

스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갔기에 스님이 마중을 나오셨다. 스님이 관음사에 계셨으므로 그 절에서 묵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관음사 주지 스님께서

약속은 빈말이라도 책임져야
자기와의 약속은 더욱 소중하다

위독하셔서 호텔에서 지내다가 한국인이 하는 하숙집에서 묵게 되었다.

관음사 주지 스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생겼다. 장례일정을 피해 현지 투어도 하면서 여행을 잘 했다. 거해 스님께서는 시간을 내어 매일 직접 운전하여 곳곳마다 안내와 설명을 해주셨다.

어느 일요일 LA의 태국인 거리에 탁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했다. 우리는 준비된 것이 없어서 2달러씩 담은 봉투를 40개 정도 만들어 스님들이 우리 앞을 지날 때마다 발우에 올려드렸다. 평소에 늘 하고 싶었던 일을 손주와 함께 하게 되어 참 으로 뜻있는 일이었다. 그곳 스님의 법문을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표정으로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축원이었다. 아이도 그 일이 늘 기억에 남는다고 하니 불심이 살아있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헐리웃 영화의 거리며 기네스박물관, 유니버셜스튜디오, 레고공원, 해양박물관, 시월드고래쇼를 보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원의 갖가지 놀이기구도 탔다. 무서운 머미를 타기도 하고 청룡열차와 고속질주하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보트도 타면서 몇 번씩 기절을 해야 할 정도였다.

겁이 많아 자전거도 못타는 내가 아이와 함께 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이 달라 자칫 헤어질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랜드캐년에서 경비행기만은 탈 수가 없어 혼자 타게 했다. 이렇게 보름동안을 여행하면서 그곳 사람들과도 인연이 되어 함께 다니기도 했다. 그분들은 손주와 둘이서 다니는 여행이 궁금했던지 물어보곤 했다. 거짓말쟁이 할머니가 되지 않으려고 왔다니까 “대단 하십니다 아이와의 약속 때문에 이 먼 곳까지…”라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손주와 약속했던 미국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어제는 6살 손주와 전화하다가 아주 예쁜 말을 하기에 “만나면 선물을 해 줘야겠다”고 했더니 포켓몬 카드를 갖고 싶다고 했다. 물론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전화가 왔다. “할머니 그 포켓몬 카드를 사서 택배로 부쳐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도 밤잠을 설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린 것 같다. 어린아이와의 약속에 또 걸린 나는 말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다. 누구와의 약속이든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상대가 그 말을 믿고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실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남발하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해 볼일이다. 타인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자기와의 약속 또한 중요하다고 믿기에, 나는 남은 내 삶을 생에 멋지게 회향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해 본다. 내년부터는 어디에도 얽매임 없이 자유인이 되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전국 사찰 참배를 하면서 우리 불교의 더 큰 품에 안기고 싶다. 좋은 인연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꿈꾸면서….

매년 찾아오는 봄철 몸살

음력 2월이면 나는 늘 감기와 몸살을 앓는다. 날짜도 어기지 않고 찾아오는 빚쟁이 같다. 콧물이 흐르고 목이 아프고 기침도 한다. 의사는 알러지라며 계절병이라고 진단했다. 흔히 봄이 되면 꽃가루 알러지를 앓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계절에 엄마를 떠나보낸 아픔도 겪었고, 첫 딸을 낳은 행복도 만끽했다. 옛 어른들은 아기 낳은 달에는 몸이 편치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영향이 있는 걸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님들의 쌓인 공덕과 부모님의 기다림이 있는가. 부모는 열 달을 기도로 가득 채워서 한 생명과 만나거늘 어찌 그 순간의 아픔이 이렇게 오래 여운으로 남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정 기간 아프고 나면 아주 멀쩡하게 회복이 되곤 한다. 내 부모님도 이러 하셨을까. 나는 부모님을 잊지 않는 의미로 부모님의 극락왕생 축원을 올리며, 엄마의 고통도 느껴보리라.

따뜻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웠던 내 엄마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이 아픔을 숙제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이니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산 연꽃모임회장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실용신안의 장 특허출원

A + 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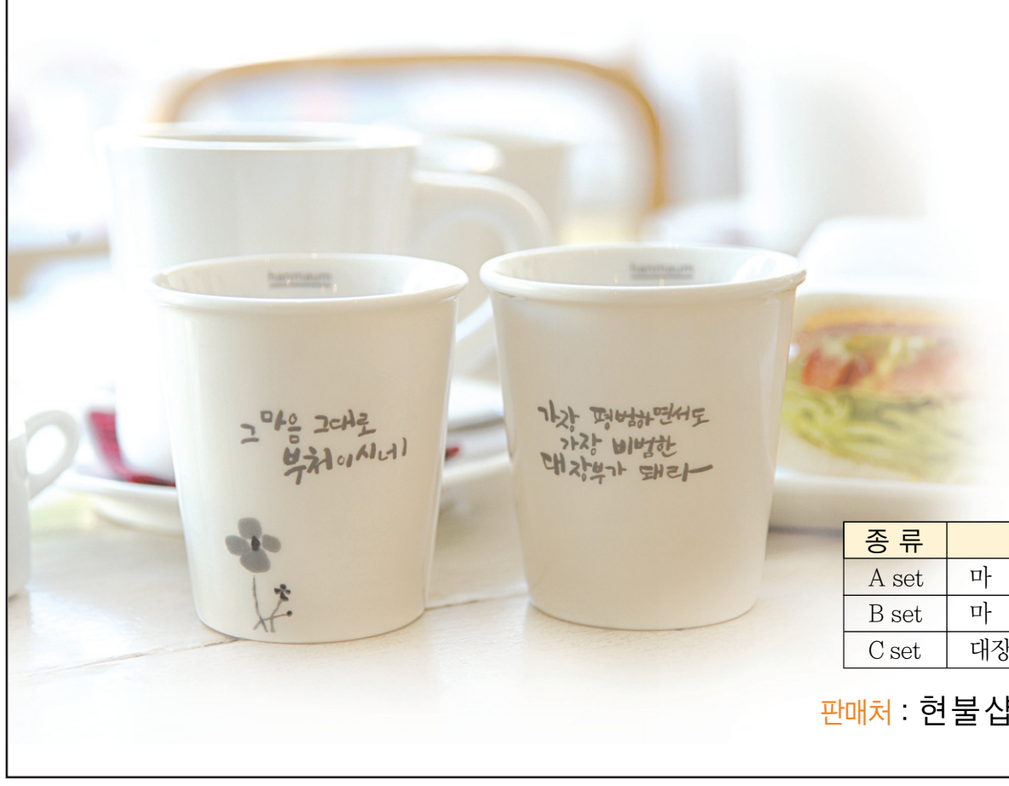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대 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 유* 무선 겸 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